

30년 이상 노후주택 광주 5만 6천동 전남 30만동

전국 243만동...농촌 단독주택 많아 증·개축 지원 필요

■김상훈 의원 국감 자료

전국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243만동,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83만동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말 현재 준공 후 30년이 지난 다세대·단독·아파트·연립 노후주택은 전국적으로 243만6902동으로 조사됐다. 이 중 1978년 5월 말 이전에 준공된 4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83만7412동이었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238만6195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다세대주택(1만9246동), 연립주택(1만6101동), 아파트(1만5360동)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2만3759동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29만9198동), 경남(28만4265동), 경기(20만7763동), 충남(19만5455동), 서울(17만4335동) 순이었다. 광주는 5만6380동이었다.

광주의 경우 30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은 84동, 단독주택은 5만5375동, 아파트는 538동, 연립주택은 383동이었다. 이중 40년 이상이 된 다세대주택은 7동, 단독주택은 3만3650동, 아파트는 29동, 연립주택은 9동이었다.

전남의 경우 30년 이상 된 다세대주택은 109동, 단독주택은 29만8297동, 아파트는 387동, 연립주택은 405동이었다. 이중 40년 이상이 된 다세대주택은 14동, 단독주택은 24만7063동, 아파트는 59동, 연립주택은 24동이었다.

김 의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은데,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들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구조"라며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그만큼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 주택 가진 미성년자 2만4000명

5%는 다주택자...상속·탈세 검증 필요

■심기준 의원 국감 자료

광주 643명, 전남 1631명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이 무주택가구인 가운데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19세 미만)가 지난 2016년말 기준 2만4000명에 육박해 부동산 증가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의 5% 가량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수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총 23,991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전체의 4.9% 수준인 1181명이었다. 2주택 보유 미성년자는 948명,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도

108명이나 됐다. 지역별로 주택 소유 미성년자는 경기도가 50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727명), 경남(1951명), 경북(1799명), 전남(1631명), 부산(1344명), 충남(1232명), 전북(1132명) 순이었다. 광주는 643명이었다.

광주의 미성년 다주택 소유자는 30명이었고 전남은 38명이었다. 서울 내에선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 미성년자가 1122명이었다.

심 의원은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 3구에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 편법 증여나 상속·증여·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44.5%인 862만 4000가구가 무주택인 현실"이라며 "부동산 상속과 증여가 주요한 부의 축적 경로가 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간66주년

이낙연 총리 "단군의 후손 남북, 평화와 번영 이루길" 개천절 경축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0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단군의 후손인 남과 북이 단군의 소망대로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길 갈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세계가 찬탄하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올해만도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열며 지구 최후의 냉전체제를 허물고 있다"며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며 민족 공동번영을 시작하려는 담대한 여정에 나선 시기에 맞는 개천절에 흥익인간의 이념을 다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단군께서 바라신 대로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하는 나라로 발전할 큰 기회를 얻었다"며 "과거 70년 동안 동북아시아 화약고였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발진지로 바꿔 세계에 공헌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 특히 이 총리는 "북한도 핵을 지니고 고립과 궁핍을 견디기보다 핵을 버리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총리는 정부가 지난달 국가목표로 '포용국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이것 또한 단군 할아버지께서 꿈꾸신 흥익인간의 길"이라며 "포용국가의 길을 정부는 착실히 가겠다. 정치와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행해 주길 간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239)명당

한국미술사를 공부하면서 산수화와 풍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원말 4대 화가였던 황공망이 자신의 회화에서 "그림에도 풍수가 있다"고 단언했듯이, 잘 그려진 산수화에 눈과 마음이 편안해진 느낌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고 싶었다. 게으르기도 했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 역량이 부족해서 흐지부지하고 말았지만 말이다. 추석연휴 때 관람한 영화 '명당'은 권력자들은 물론 인간의 욕망을 땅과 풍수

마음 편안해지는 산수화...그림에도 풍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땅에 관심 많은 요즘 세대와도 맞물려 시적이 있었다. 파란만장하면서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흥선대원군이 지관의 조인을 받아 "이대에 걸쳐 왕이 나올 자리"로 지목받은 터에 부친 남연군의 묘를 이장했다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소재인 것도 흥미를 더했다.

왕손이지만 왕권에 대한 야욕을 숨기고 당시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의 눈에서 멀어지기 위해 허랑방탕하게 떠돌며 비웃음 받아가던 석파 이하응(1820~1898)에게 큰 위안을 주었던 것은 난초 그림이었다. 추사 김정희에게 난초그림을 배웠던 석파는 추사로부터 "암록강이동에 이만한 난초그림은 없다"는 극찬을 받았을 정도로 난초그림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명당으로 이장했던 덕분인지 1863년 흥선대원군에 봉해진 뒤 깊이 국정에 개입했고 명성황후와의 갈등과 일본의 외교에 휘말려 유폐와 정계 복귀 그리고 은퇴를 반복했던 생애 속에서도 뜻을 세워 난을 그렸다고 하니 새삼 그의 강한 멘탈에 감탄해본다. 아니 어쩌면 예술이 있어서 모진 세월을 견디며 초월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석파의 '석란도'(1887년 작)는 자우자재로 너울거리는 난초 잎이 불안정해 보일 정도로 파격적인 구도가 거친 듯 개성 넘치는 작품이다. 바람에서 위태롭게 멀어져 내린 것 같은 무수히 많은 잎과 무성한 꽃들이 아리따우면서도 맵시 있다. 정치적 갈등의 한 복판에 서있었던 그였



이하응 작 '석란도'

지만 난초를 그리는 일에 전심하는 동안은 탁월한 화가였던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주~우~욱~

무안 ↔ 양양 취항 기념 항공 특가 77,000원 !!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매주 3회 정기편 운항(화(3박4일) / 금, 일(2박3일))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기타큐슈, 빗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플렉] 499,000원-
- 기타큐슈, 빗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플렉] 599,000원-

※ 불포함사항: 무안공항 수송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나가노 북알프스(마츠모토) 직항 전세계

10월 2일(화) ~ 10월 20일(토)

- 10월 2, 9, 16(화 출발) 북알프스, 가미코지 1,198,000원-
- 3박4일(토 출발)[실속] 998,000원- [플렉] 1,098,000원-
- 4박5일 골프(화 출발) 998,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매주 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준특급] 699,000원- ◆ [특급] 799,000원-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매주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오전출발
- [실속(세미패키지)] 오사카, 나라, 교토 699,000원-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3박4일 899,000원-

무안 ↔ 다낭 직항전세기 [매주 화(3박4일) / 금(3박5일)]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골드]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599,000원- /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후에, 호이안 4일 799,000원- / 5일 969,000원-

무안 ↔ 제주도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추석 연휴] 무안 ↔ 돛토리 직항 전세기

9월 23일(일) ~ 9월 27일(목), 총 5회 운항

- 9/23(일), 24(월)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 9/25(화), 26(수), 27(목) 2박3일, 3박4일 639,000원-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9월, 10월(매주 월, 목, 금 출발)

- 대만, 화련,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スケジュール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주다2003-1호

◆ 교통편: 여행객에 1인 기준, 여행지별 기내/외국비행: 1인당 국내선항공 5천원, 관광진흥법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에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유급 취소)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 경비(항공료, 기내식, 음료, 맥주, 기념품, 배개, 비디오 상영)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